

<페미니즘의 도전>에서 성매매 관련 텍스트 일부 발췌

마박

- 성매매 방지법*은, 제정 과정에서는 큰 논란이 없었지만, 시행 후의 상황은 여성주의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강도로 한국 여성주의 정치를 뒤흔들었다. 성매매 방지법은 한국의 여성주의자들에게 설산(雪山)의 깊고 넓은 - 따라서 '무서운' - 틈(crevasse)이었다. 나를 비롯한 많은 여성주의자들은, 성이란 곧 성매매라고 생각하는 남성 인식과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러한 여성주의 실천이 혹시라도 '가장 억압받는 민중 여성'인 성판매 여성의 목소리를 빼앗는 데 일조할까 봐 전전긍긍하다가, 결국 가장 '안전한' 방법인 침묵으로 일관했다. 적어도 나는 그랬다. '여성운동'이 '여성'을 억압하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 페이지 | 2019.09.30.



- '근절 대 허용'이라는 이분법은 애초부터 어느 여성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래서 빠질 수밖에 없는 크레바스였다. 왜냐하면 이 논쟁 구도 자체가 여성의 입장에서는 성립될 수 없는 질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여성'들은 모두 이 구도에 동원되었다. 생존권 투쟁에 나선 성판매 여성이나 여성주의자나 모두 그 틈새에 양다리를 걸치고 위태롭게 서 있었다.

· 페이지 | 2019.09.30.



- 서구의 경우처럼 주로 학술대회나 고급 호텔, 휴양지에서만 전문적으로 일하는 백인 성판매 여성(한국의 학술대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르다. 몇 년 전 노동조합 전문 성판매 여성인 '빼빼 아줌마'는 알려진 사례다)과 부모와 전문 조직에 의해 인신매매되어 '성관계' 후 장기만 적출되고 살해되는 동남아시아와 남미의 남녀 어린이가 같은 성판매자인가 혹은 성 노동자인가?

· 페이지 | 2019.09.30.



- 성판매 여성은 변화하지 않는 고정된 '정체성'이 아니다. 성판매 여성은 인간의 성 활동이 남성 성기 중심 섹스로 환원되고, 상업화된 성과 이성애 가족 제도 내부의 성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다는 환상 속에서만 가능한 범주다.

· 페이지 | 2019.09.30.



- 성판매 여성을, '그들도 우리처럼' 과정 속에서 섹스팅되는

‘유목적 주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 페이지 | 2019.09.30.

- 단속 중심의 성매매 방지법으로 집결지를 주로 이용해 왔던 가난한 남성들은 ‘타격을 입었지만’, 덕분에 일자리를 잃은 여성들은 더욱 ‘저가’로 ‘공급’되고, 이 ‘혜택’은 룸살롱 등지에서 은밀히 성 구매가 가능한 돈 많은 남성들에게 돌아갔다.

· 페이지 | 2019.09.30.

- 성판매가 “여성의 선택인가” 대 “사회 구조 혹은 직접적인 인신매매에 의한 강제인가”를 기준으로 성매매 제도를 정치적·윤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섹슈얼리티의 성별 권력을 은폐하는 남성 중심 논리다. 강제냐 동의냐라는 질문은, 성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즉, 왜 언제나 사는 사람은 남성이고 파는 사람은 여성인가라는 논의를 봉쇄한 상태에서 구성된 언설이다.

· 페이지 | 2019.09.30.

- ‘선택’과 ‘강제’의 이분법은, 특히 처벌주의 아래서는, 성판매 여성을 피해자와 범죄자로 구분하고, 여성은 범죄자가 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피해를 증명해야 한다. 그리하여 피해 주장이 곧 피해자화의 과정이 된다.5) 남성 사회가 원하는 것은 피해받은 여성이 아니라 여성의 피해자화이다. 남성 사회가 그토록 선택과 강제를 구분하는 것은, 여성의 피해자화를 통해 남성 주체를 유지하기 위함이고(‘강제’), 여성이 동의했다는 논리를 통해 남성 주체를 여성에게 확장, 투사하기 위해서이다(‘선택’). 이는 성폭력 문제에도 고스란히 적용된다. 그들이 성매매와 성폭력을 통해 근본적으로 원하는 것은 ‘남자 되기’이다.

· 페이지 | 2019.09.30.

- 원리는 같다. ‘공적’인 곳이라고 간주되는 영역에서 남성은 국가나 자본의 형태로 여성의 노동을 착취하며, ‘사적’인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가족, 이성애 관계, 성매매에서는 관계성을 혐오하고 부정함으로써 여성의 감정 노동에 무임승차한다. 성매매 ‘근절’이 ‘불가능’하지만, 여성주의 정치의 최후, 절대 프로젝트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것은 남성의 의식과 무의식, 그들의 24시간을 혁명하지 않고는 사라지지 않을 남성 젠더 문제다.

· 페이지 | 2019.09.30.

- 성매매 방지법은 성급하게 추진되었지만, '단속'은 잘 되고 있는 편이다. 이 법의 내용이 기존의 윤락행위방지법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주들의 저항이 큰 것은 순전히 강력한 단속 때문이다.17)

· 페이지 | 2019.10.20.



- 그동안 기지촌 성매매와 기생 관광을 주도해 왔던 국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국가는 업주와 성 구매자(남성)의 이해를 대변해 왔고, 경우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포주'의 역할을 자임해 왔다.18)

· 페이지 | 2019.10.20.



- 국가가 성매매 방지법을 제정한 이유는, 여성을 '보호'하거나 고삐 풀린 남성 섹슈얼리티를 규제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지나치게 비대화된 성산업이 '정상적인' 국가 경제를 위협할 만한 수준에 이른 것에 대한 위기의식과 '인신매매 3등급 국가',19) '여자 장사 왕국'이라는 국제적인 망신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견해가 지배적

· 페이지 | 2019.10.20.



- 군산 성매매 업소 화재 참사에서 보여지듯이, 성판매 여성에 대한 감금, 구타, 강간, 인신매매 등 참혹한 사건들은 국가가 성매매에 개입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기지촌 성판매 여성을 '외화 버는 애국자', '민간 외교관'이라고 칭송했던 시절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 페이지 | 2019.10.20.



- 2003년 여성부 조사에서 33만 명(20~30대 여성 인구의 4.1퍼센트, 20~30대 취업 여성의 8퍼센트), 1998년 한국여성개발원 조사에서 51만 명, 2001년 기지촌 여성운동 단체인 새움터 조사에서 73만 명이였다. 성매매 관련 전문가들은 최소 150~200만 명이라고 본다. 성매매 산업 규모는 연간 총 24조 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국내 총생산의 4.1퍼센트로, 농림어업(4.4퍼센트)과 비슷한 규모이다.20)

· 페이지 | 2019.10.20.



이후에도 꼭 이어지지만 일단 일부만 가져와봄
아직 안읽어봤으면 전문 한번 읽어보는 것을 추천